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

(행 3:1~10)

심 군 식

(부산 용호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더욱 계속적인 은혜를 노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기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앓은뱅이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앓은뱅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미하였으니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줍니다.

1. 성전 미문에 앓은 사람

앓은뱅이는 나면서부터 앓은뱅이였습니다. 그의 생은 나면서부터 불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장래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 하루 끼니를 염려하며 목숨을 이어가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그는 성전 밖 미문에 앉아서 기도보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걸을 하는데 앓은뱅이는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동정을 더욱 필요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이 불쌍한 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돈 몇 푼, 얼마의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의 미문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은 많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모자람을 느끼고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받아도 항상 더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들은 성전만 더럽습니다.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러나 앉은뱅이 때문에 불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불미스럽고 보기 흉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전 깊숙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을 지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앉은뱅이는 생각 밖에 사도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씀에 앉은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돈이요 재물이요 부귀와 연결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앉은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필요한 자에게 임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앉은뱅이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은 그가 얻어 먹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걸을 하여도 성전 미문에서 하였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접하여도 성도들과 접촉을 많이 함이 좋습니다.

3. 사도들의 가르침을 희망한 사람

앉은뱅이는 사도들의 도움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곤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3:11). 이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계속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결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자랑하고 그들을 찬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원하였던 것 뿐입니다. 사도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놀라운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귀한 것입니다. 특히 은혜 많은 사람과 교제함은 좋은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는 일이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길도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에 부절히 자신이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앙상 가르침을 받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앓은뱅이였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기억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교회 중심의 생활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